

## “나도 지도자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와 근기에 따라 불건이나 상황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많은 값을 치르면서도 얻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오래 끌지 않으면서 비용도 적게 치러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정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얻어야 할 것은 간과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은 오히려 독특한 값을 치르는 전도통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IMF사태를 극복하고 하

공서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한번 안 된다고 한 일은 누가 해도 안 된다고, 된다고 한 일은 꼭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데, 한국에서는 된다고 하는 일이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안 된다는 일이 다른 사람이 가면 되 어질 때 어쩔 줄 몰랐다”라고 말할 때 부끄러웠다. IMF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일관되고 확실하게 법을 집행하고 적용해야만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 신뢰성 회복이 잠재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을 분담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



오중근  
 (호원대 교수·경영학)

우리 나라가 IMF의 협조를 받은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뚜렷한 방향이나 분위기는 보이지 않으니 경제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큰 걱정이다. IMF의 지원을 받은 것이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여러 원만한 상황을 전회 위력의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이겨낸 나라가 있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있다. 도란선사가 백락천에게

“도도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알 수 있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고 했듯이, 어떻게 해야 IMF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IMF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각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공정한 게임룰에 의한 법 적용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의 집행과 적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지적한다. 지난 해 홍흥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홍흥에서는 관

“이젠 남탓 말고 나부터 솔선수범 공동체 의식 키워 전화위복 기회로

것을 알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세미 운동도 잘 했고, 88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끼던 금도 모으는 등 국가가 필요로 할 때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저력과 열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보다는 자기 목표와 자기 완성을 위해 정열을 다하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이라는, 남탓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큰 원(願)과 열정을 가지고 정진하여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해 보자.

## 남은 음식 이웃에 전 화 1377

먹거리 나누기운동 확산...정부 적극 지원  
 조계종 냉동차 3대 확보 푸드뱅크 복지사업

예전부터 우리네 인심은 ‘밥’을 나눠 먹는 것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나그네나 집을 찾아 온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다. 밥을 나눠달라며 찾아 온 사람에게 찬밥이지만 그릇 가득 담아주곤 했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IMF사태로 우리 이웃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밥을 굶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은 음식을 나눠 먹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과 성공회가 주축이 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전국푸드뱅크연합 등의 종교·시민단체와 사회복지 시설이 관공서나 기업체의 구내식당, 그리고 제과점과 결혼식장 식당들과 연대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거둬 무료급식소, 경로당, 고아원 등에 보내주고 있는 것. 정부도 먹거리나누기 운동의

확산에 따라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남은 식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에 쉽게 전달하기 위해 17일부터 ‘푸드뱅크(남은 식품 나눔은행) 특수전화 1377번’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가동했다. 푸드뱅크가 설치된 지역에서 식품을 기탁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는 국번없이 1377번을 누르면 된다. 식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업체는 푸드뱅크가 끊어주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세의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IMF사태 이후인 지난 1월부터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돼 사회복지단체의 협조로 지난 상반기까지 모두 4천6백30건, 8억여원 어치의 식품이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나눠졌다. 조계종은 모두 3대의 냉동차량을 보유, 푸드뱅크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8월 1대의 냉동차량을 구입,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기부자들의 쌀·부식·음식 등을 가공해 서계동·수송동 보현의집,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등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방에서는 통도사 부산포교원과 대구 불교사회복지회가 냉동차량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거나 불자들의 기부 음식을 실어나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사태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는 데도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이 8조원여치나 된다”며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돌보며 이웃을 돕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이 사업을 국민적인 운동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은 ‘푸드뱅크’용 냉동차량으로 매일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서계동·수송동 보현의집에 음식을 배달한다.

### 불교의 눈 “음식 보시는 사랑의 양식”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중일아함경) 부처님은 중생들이 자비심을 발해 팔고 부덕을 하기 위해 집집마다 차례로 일정한 음식만을 공양받았다. “구걸하는 자는 아귀계(餓鬼界)의 문을 여는 것이 된다”는 (보살본행경)의 가르침도 있다. (잡아함경)은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자기를

따르는 양식이 된다”고 하고,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는다”고 설하기도 했다. 한편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침에 삼백 가마솥의 밥을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소갯을 짜는 잠간 동안이나마 모든 중생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 익혔다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는 (잡아함경)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불자들 역시 “종미한 음식을 보면 마음을 경계하고, 무미한 음식을 보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화엄경)

### 청소년 ‘귀신집’ 유행

학교행사 변경요구·이지메 등 놀이수준 넘어 후유증 심각

“0일에 학교 행사를 하면 학생들이 어 렷 죽는다” “00는 귀신이 붙은 아이다”. 최근 초·중·고등학생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점괘 보기’가 놀이 수준을 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 놀이는 2명의 아이가 빨간 볼펜을 마주 잡고 ‘본신사바’라는 주문을 외워 점괘를 얻는다는 놀이의 일종. 그러나 어린이들이 점괘라고 주장하며 학교 행사일 변경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특정 학생을 골라 따돌리는 ‘이지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귀신 집’을 보는 순간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들도 피리를 물고 있다.

이같은 ‘귀신 집’ 열풍의 진원지는 울여름 귀신을 다룬 하이틴 영화로 히트한 ‘여고괴담(女高怪談)’. 학교마다 학생들 두서너트만 모이면 영화의 한 장면인 귀신을 불러내는 ‘본신사바’ 의식을 흉내내는 진경경이 펼쳐질 정도로 ‘귀신 신드롬’을 낳았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점괘 놀이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며 “어른들이 공황과 풍수 등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귀신 집’의 후유증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사오정 유머 대화단절·뒤틀린 세태 등 풍자 IMF 스트레스 해소엔 긍정적

사오정과 삼장법사가 대나무 숲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오정의 반역’이란 시각도 있지만, 사오정은 요즘 IMF 한파로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사오정의 문선사담,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학적 해석은 대화 부재의 현대사회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로는 듣고도 못들은 척, 때로는 자기 중심적 ‘일방통행’ 신호를 아무렇지 않게 내보낸다.

계다가 예기치 못한 IMF사태를 타개할 전망 부재 등이 ‘판소리 종후군’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근처에는 현실바깥으로의 도피심리가 깔



◇허영만 작 ‘사오정’  
 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오정 시리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장애용품 의료보험 적용” 장애인부모회, 정부건의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엄요섭)는 9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모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장구와 의료기기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특수학교의 증설 또는 일반학교와 통합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호화·불법모지 처벌강화 “자전거타기 생활화 하자” 시민운동본부 본격 활동

내년부터 호화모지와 불법모지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고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호화 또는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홍배)가 9월1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단체 및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한 운동 본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와 자전거 안전운전자격증 발급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 · Y · U · N · D · A · I · P · R · O · D · U · C · T · I · O · N

## 확 장 이 전 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현대프로덕션은...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빠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든 영상매체의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정보사회 포교수행의 동반자 ‘현대프로덕션’이 본격적인 영상 포교의 시대에 참여하고자 100평 규모의 첨단 설비를 구성하여 확장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전한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7-4 안텍스 B/D 지하  
 대표전화 (02)553-8881 · FAX 554-8881

###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시찰영상 제작을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시찰·불교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야 할 21세기 포교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시찰·불교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